

BTCC

“신규 유저 한정

BTCC에 가입 및 입금하고 최대 17,500 USDT를 받으세요!
친구 초대 시 더 많은 리베이트 획득 가능



지금 가입

미 연준, 금리 0.25%p 인상...금값 · 비트코인 ↑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us-fed-raises-interest-rate-by-0-25p>

지난달 1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상승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도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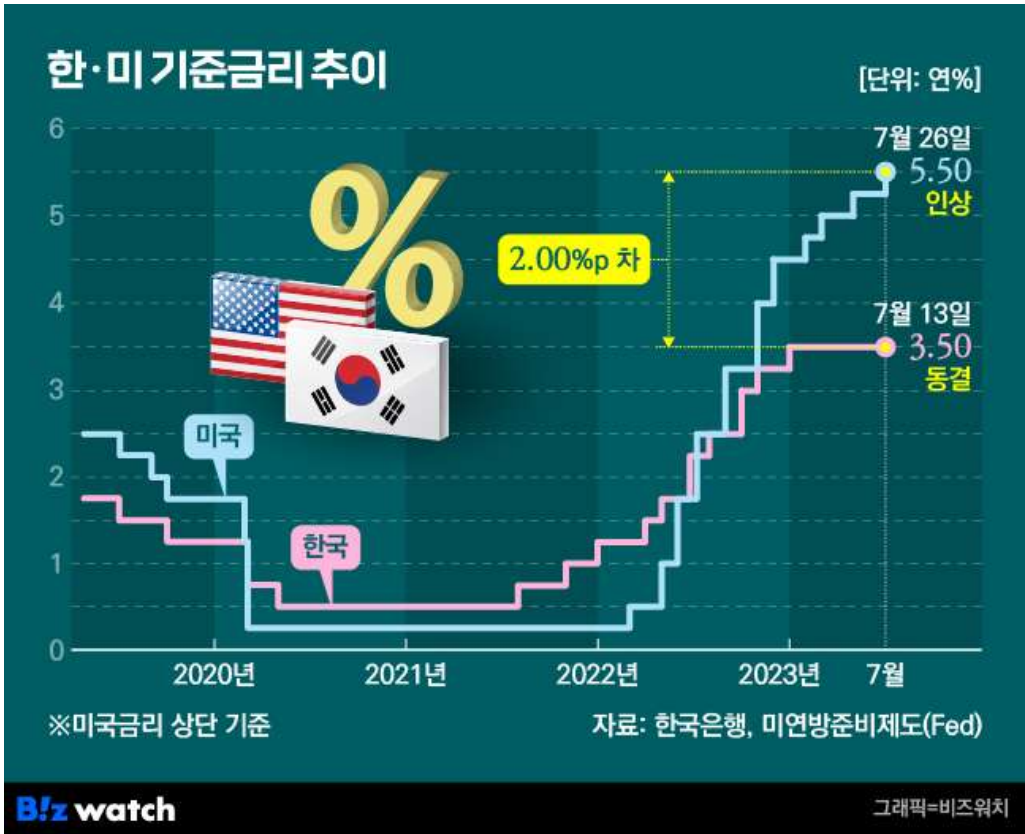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

26일(현지시간)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5.25~5.50%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

은 수준이다.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이런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지만, 신용 조건 강화로 고용 및 경제 활동, 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영향은 불확실하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추가적인 정책 강도를 결정함에 있어 누적 긴축 및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기준금리 결정 뒤 기자회견에서 다음 연방공개시장위 회의가 열리는 9월에 추가 인상이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가 그것을 타당하게 만든다면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며 “또한 그 회의에서 동결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관해서는 “올해는 아닐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금리 인상 후, 금값·비트코인 급등

금리를 인상한 후 달러 가치는 내리고 금값 및 비트코인은 상승했다.

금값 상승

달러화는 하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 대비 0.345% 하락한 1.1093을 기록했다.

뉴욕 BNY멜론의 존 벨리스 미주 거시 전략 총괄은 “추가 금리 인상이나 동결에 똑같이 문을 열어 두면서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그(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자신감에 달러는 하락하고 증시는 일부 상승했다”고 말했다.

금값은 상승했다. 미국 금 선물은 달러화 가치와 채권 수익률 약세 등의 영향으로 0.5% 상승한 1천974.90달러를 기록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지급을 할 필요가 없는 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한다고 CNBC는 설명했다.

하이리지퓨처스의 데이비드 메저 금속 담당 이사는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그 결과 이자율이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금에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급등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은 지난 24시간 동안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BTCC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지시간 7월 27일 오전 10시 7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79% 상승한 29,38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Bitcoin 차트](#)

비트코인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후 29,675달러까지 올랐다. 이같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코인덱스 시장 지수 기준으로 7월 고점인 31,800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코인덱스에 따르면 웹3 투자 펀드 제너레이티브 벤처스의 매니징 파트너인 렉스 소콜린은 연준의 발표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연준의 정책 결정과 파월 의장의 후속 논평에 따라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벤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지점에 안착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0.91% 오른 1872.74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페이지: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또 인상... 한미 금리차 1.75%p - BTCC](#)

[미 연준, 금리 0.25%p 인상... 파월“연내 인하 없다”,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한은, 기준금리 연 3.5%로 동결...올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까?](#)

[미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파월 “긴축 유지 해야”](#)

[한은, 기준금리 3.50%로 0.25%p 인상...금리인하 예상 시기는?](#)

[금 시세 전망: 2023년 금 값 3000달러 되나? 금 투자 방법 및 전략은?](#)

[비트코인 가격 전망 \(2023년 ~ 2030년\)과 암호화폐 시황 - BTCC](#)

더 많은 내용은 [BTCC 뉴스](#) 및 [BTCC 아카데미](#)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혜택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가입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 및 거래하면 최대 **10,055USD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USDT**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BTCC 거래소

- 12년 보안 무사고
-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획득한 믿음직한 거래소
- 전세계 규제 준수
- 세계 최저 수수료(**0.03%**)
-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 무료 모의 거래 가능
- 풍부한 유동성 및 오더북
- 토큰화 주식 및 암호화폐 출시
- 원화입금 지원
- 24x7 시간 한국어 고객센터 제공
-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 PC/모바일 거래 가능
- 다양한 이벤트